

이병노 담양군수 “부자 농촌·츄츄한 향촌복지 실현”

●민선8기2주년

농업 예산 지속 확대...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도 음식 특화·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 명품도시 조성

이병노(사진) 담양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민 7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에 앞서 이 군수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항상 열정적인 관심으로 함께 준 군민과 900여명의 공직자가 함께 이룬 것”이라며 민선 8기 2년의 성과와 남은 2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담양군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예산 지속 확대하고, 127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공모 선정과 담양 명품팍기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츄츄한 담양형 향촌복지 정작을 위해 통합돌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거동불편자 병원동행 서비스와 퇴원환자 돌봄 사업 등 군민이 체감하는 효도행정을 실천했다”며 담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음식 특화 농공단지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50억원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2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담양군 제공>

규모의 무정 불안지구와 담양읍 삼만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

이고, 고서 보춘지구와 대덕 매산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사업도 계획

대로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부영주택 ‘1만원 주택’ 사업 극적 합의

이달부터 리모델링 시작...완료 즉시 입주 가능

화순군이 ㈜부영주택과 1만원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9월 초로 입주시기를 확정했다.

화순군은 2일 “지난달 30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당첨자 입주를 위해 ㈜부영주택과 리모델링 관련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최종 입주 대상자 명단 공고’에 따르면 입주자 계약 및 입주 절차 관련 안내는 5월31일까지 ‘개별 안내’ 한다고 명시돼 이에 화순군은 문자를 통해 입주 시기를 7월 중순 이후로 안내한 바 있다.

사전 안내문자 발송 이후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등 건설 경기 침체로 ㈜부영주택 측이 리모델링에 부담을

느껴 입주 시기가 미뤄지자,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입주 시기를 9월 이후로 부득이하게 연기됨을 안내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에 입주를 준비하던 입주자간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영주택에서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완료되는 즉시, 당첨자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순군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7월3일부터 9월까지 1만원 임대주택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존 전체 계약 종료로 입주가 긴급한 당첨자 파악에 나설 예정임을 지난달 30일 재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영주택의 통 큰 결단과 올해도 전체 리모델링 결정을 해준 이준근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협의가 지연된 만큼 입주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입주가 시급한 청년에게는 리모델링 시기와 관련 협의를 거쳐 주거(임주)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탄소중립 흡살리기 박람회 준비 ‘순항’

주제관·기업관·교육관 운영 등 친환경 휴가지 홍보

구례군이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2024 탄소중립 흡 살리기 박람회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 탄소중립 흡 살리기 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실과소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람회 운영 대행사인 ㈜아이캔컴퍼니가 박람회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24 탄소중립 흡 살리기 박람회는 오는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생명의 근

원 흡, 자연을 품은 구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구례군은 주제관과 기업관, 교육관을 구성해 친환경 휴가 가치 홍보를 전담하고 흡 놀이터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례군은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구례군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특강을 통해 지역민이 박람회의 주체로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순천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콘텐츠 ‘두다톡’이 어린이 체험활동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작은정원사의 모형을 관람하는 어린이 관람객(왼쪽)과 ‘두다톡’ 디지털인형극.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두다톡’...어린이 콘텐츠로 ‘인기만점’

AI·디지털 기술 접목...실시간 소통 인형극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콘텐츠 ‘두다톡’이 어린이 체험활동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두다톡’은 EB S가 제작한 탐색 애니메이션 시리즈 ‘두다톡’의 인기 캐릭터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인형극으로, 현장에서 전문 배우들의 목소리 연

기를 통해 어린이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정원모형 이야기를 나누며 생소할 수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해주는 체험형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형극 관람 후에는 키즈가든 일원에서 현장체험 코스로서 ‘작은 정원사의 모형’을 주제로 한 스탬프투어를 즐

길 수 있으며, 미션 완료하면 ‘두다톡’ 캐릭터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는 키즈가든, 노을정원, 도시숲 일원 7개 스팟을 탐험하는 코스이며, 코스 중간에는 ‘두다톡’ 주인공들의 실물모형 캐릭터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디지털 인형극 ‘두다톡’은 순천만국가정원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순천=정기 기자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1일 총 10회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용 방법은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할 수 있고, 당일 현장 관람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 성인 위주의 순천만국가정원에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의 실물모형 캐릭터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디지털 인형극 ‘두다톡’은 순천만국가정원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순천=정기 기자

전남대 여수캠, 대학과 도시 미래 이야기하다

일자리·청년·대학 등 3대 당면과제 해소 정책 절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대학과 도시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2024 CNU포럼’을 가졌다.

2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따르면 최근 산학연구관에서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김종기 여수부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서금열 교육장, 사·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

와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과 대학이 속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이 ‘성공적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기조강연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지방소멸과 도시위기, 대학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 대학 등 3대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22조원이 들었고, 4대강 건설에도 22조원이 들었다. 그러나 글로벌대학 30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이며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낙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협업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일본의 경우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지방활성화를 이루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협력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 단일 국립대학법인의 복수 대학 운영, 국·공·사립의 경계를 넘는 연대체계 구축, 지역연대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희 흥익대 교수는 “지자체의 특화 자원과 대학 및 연구소의 지식 생태계, 지역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생태계,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성 기자

농어촌공 장성지사, 농지연금사업 홍보

청년농 등에 농지이양·공사에 매도 조건 매월 소득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최근 장성군 노인대학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홍보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은퇴를 고민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매도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기 때문에 농업의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소유한 농지를 공사 매도 또는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ha당 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당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면적과 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된다.

두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은퇴를 고민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매도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기 때문에 농업의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김재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은 “이 사업이 은퇴·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포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00-8636)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군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의장에 김재승 의원

장흥군의회는 2일 ‘제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장흥군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에는 김재승(사진) 의원이 선출, 2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부의장으로는 김기용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유금열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홍정임 의원을 각

각 선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김재승 의장은 “주 민에게 신뢰받는 의 회 구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아울러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7월8일부터 제22회 임시회를 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후반기 첫 의사일 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노홍록 기자

